

# 선거법 어겨도 승진... 고흥군 부당 인사 만연

## 전남도 감사 72건 적발

## 무자격자 채용·수의계약 특혜

## 직원 100명 신분상 조치

지방선거에서 현직군수를 도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버텨 1.2순위를 제치고 승진하는 등 일선 시·군의 인사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이 같은 인사가 반복될수록 공직사회의 '출서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외에도 읍주운전을 해 징계를 받고도 근무성적평정(근평)을 높게 받고, 자격증

이 없는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등 인사행정도 엉망이었다. 전남도는 15일 "고흥군의 지난 2년간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인사, 예산·회계, 사회복지·보건·환경, 농정·축산·수산,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민원·지역경제·문화관광, 기타 등에서 모두 7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 9명, 훈계 86명, 경고 5명 등 직원 100명이 신분상 조치를, 21억6000만원의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고흥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762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직원의 13%가 넘는 수치다.

인사분야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현 군수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로 알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 7급 A씨가 징계의결요구 중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결정돼 논란이 됐다. 게다가 A씨는 1.2순위보다 경력도 짧았다. 같은 해 5월 읍주운전을 했다 건축처분을 받은 B씨도 상반기 근평에서 최하위가 아닌 2위를 쥘 승진시켰으며, 지난 2015년 1월 안전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서 전기·소방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6억 1600만원 어치의 막구조물을 구매하고,

소각시설을 특정 특허제품으로 설계해 수주 특혜를 주는 등 예산·회계에서도 부적절 행정은 계속됐다. 수질오염원, 대기질오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문화공원 조성사업, 리조트개발사업 등 공사계약이나 추진 과정에서도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단재장이 승진시켜주는 것은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후계 대상자가 많지만 징계 직원이 100명에 이른다든 점도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노사민정 협력 평가

## 9년 연속 최우수·우수 자치단체

전남도가 고용노동부의 2016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15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15일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전국 최초로 9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우수 자치단체 표창을 받아 '산업평화 안전지역으로서 투자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평가는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성과, 우수 사례 발굴 가능성, 주요 고용노동 현안 해결 노력 등 9개 평가 항목을 심사했다. 전남도는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 개최, 고용 안정과 장시간 근로 개선 협약 체결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도와 시·군의 노사민정 통합거버넌스 구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조선업 근로자 고용 위기 대책 추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프란치스코 교황 "생일날만 축하해줘" 17일(현지시간) 80세 생일을 맞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바티칸의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주례 일반일행 행사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아라비아 숫자 '8', '0' 모양의 초가 꽂힌 케이크를 선물 받고, 촛불을 일으켜 불어 끄고 있다. 이날 교황은 생일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넘쳐나자 "미리 생일을 축하하면 불운이 닥칠 수 있다"며 농담을 던졌다. 아르헨티나 태생인 교황은 "내 조국에서는 미리 표현된 축하는 불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수영대회 지원본부 신설안 제동... "설명 부족"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와 광주 군(軍)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 보류하고 오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건 것은 정례회 개최 뒤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데다 일부 관련 상임위에서 의견 수렴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회는 시가 개편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개편안은 수영대회지원본부와 군공항 이전추진단 신설, 도시재생과와 도시디자인과 통합, 일부 과 명칭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직제는 기존 3실 6국 2본부 11관 4담당관 42과에서 1본부 1과를 늘려 3실 6국 3본부 11관 4담당관 43과 체제로 바꿀 계획이었다. 정원은 3386명에서 30명을 줄여

3356명으로 조정된다. 지난 1일 시의회에 상정된 뒤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상임위 심의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뒤 지난 14일 논란 끝에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산업건설위 일부 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 통합안이 포함돼 있는데도 설명이 없었다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정회 뒤 의원 간담회를 하고 개편안만을 뺀 채 나머지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안건을 본회의 표결 등을 통해

처리하거나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켜도 될 사안이라는 지적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또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시의회가 괜히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민선 6기 운영한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이변을 포함해 5개월에 한번 꼴로 이뤄지는 것으로 수영대회 준비 등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잦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수영대회 지원본부 승인이 행사부로부터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시의회 상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 남도정원 후보지 담양 윤교리·강진 남포리

## 2018년 시범 조성 제안

## 1시·군 1대표 정원 목표

전남도가 신규 조성할 남도정원의 후보지는 담양군 윤교리 일대와 강진군 남포리 일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의 경우 죽녹원의 대나무숲과 추성창의촌, 시기문화촌, 담빛체험공원, 사군자원으로서 국가기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남도는 15일 분야별 전문가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서재빌딩에서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과 한국전통조경학회는 활성화 핵심과제로 크게 거점별로 영역을 구분하고, 전통·인문 소재를 주변 정원자원과 연계해 기존 전통정원을 활성화하는 것과 신규 남도정원을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정원도시 전남을 구현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활성화 방안으로 각 정원을 3개의 구역(Zone) 즉, 핵심거점영역·주변둘레영역·문화경관영역으로 구분하고, 정원 관련 인문 관계도와 스토리텔링, 관련 시화 등 풍부한 인문학적 소재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변의 누정, 고택, 사찰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거점 지역은 소쇄원, 백운동정원 등과 같은 핵심 정원 지역으로 정원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 전통·인문이 살아있는 옛 정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주변둘레 지역은 정원으로서의 보행이

시작되는 곳이자 보행네트워크로 주변의 경관자원들이 연결되는 곳으로, 탐방, 식사, 숙박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존과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관 전이(완충) 지역이다. 문화경관 지역은 핵심거점정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또는 정원에서 조망되는 주요 경관지역으로, 정원으로서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인 만큼 경관적 맥락의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지역의 다양한 경관·문화자원을 활용해 전통·생태·문화·예술정원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을 도입한 '남도정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우선 1개소를 선정해 2018년에 남도정원 제1호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1시·군 1대표 정원을 목표로 했다. 기존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표지판 등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사전안내·가이드를 위한 도우미 상시 배치, 민간주도의 남도정원 돌보미 공동체 운영, 시화에 근거한 경관복원, 정원 휴식년제 및 사전예약제 도입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보완해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10여개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사업은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자원으로 평가된 전통정원에 인문학적 가치를 부여해 미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 GRDP 전국 5%도 안돼

## 2014년 62조4567억원

전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 GRDP 부가가치 규모는 62조4567억원으로, 2013년(62조2895억원)보다 1672억원(0.3%)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1485조5000억원의 4.2% 규모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9위에 해당한다. 1인당 GRDP 부가가치는 3552만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국제경기 약화로 '조선업'과 '화학제품제조업'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기업'과 '석유정제품제조업'의 생산 실적이 늘고, '기타산업'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조금씩 늘어 전체적인

GRDP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경제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은 2013년 대비 4.1% 감소한 19조6738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36.4%를 차지했다. 농림어업은 2013년에 비해 2.2% 감소한 4조4714억원으로 8.3%를 차지했다. 시·군별 GRDP 부가가치의 규모별 비중은 여수(29.2%), 광양(15.9%), 순천(8.1%) 등이 높고, 구례(0.7%), 진도(0.9%), 경진(1.1%)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식 전남도 범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발표한 2014년 시·군 GRDP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GRDP를 시·군 단위로 분배·추계한 것"이라며 "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